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뉴욕연방은행총재, “3월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 상조”

[미국 금융]

- WSJ: 시장은 연준 금리 전망에 환호하지만 랠리 때문에 복잡해져
- Bloomberg: 연준 금리 인하시 당신의 모기지나 재정은?

[미국 무역]

- Bloomberg: LA 항만청장, “트럼프의 수입품 10% 관세안, 무역에 타격”

[글로벌 경제]

- Bloomberg: IMF, “각국 중앙은행은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에 성급히 따르지 말라”

[사이버 보안]

- WSJ: 미 국가정보국, 해커 추적조사 컴퓨터 코드 개발 중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테슬라 리콜 결정, 법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
- WSJ: GM의 크루즈, 어제 목요일 정직원 900여명 해고
- Bloomberg: 미 전기차 시장, 내년에 좋지 않다... 전기차 판매 감소 예상
- FinaceYahoo: 코스트코, 내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 크게 증가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’s Williams Says Talk of March Rate Cut Is ‘Premature’ 뉴욕연방은행총재, “3월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 상조”

- 뉴욕연방은행 총재인 John William 은 연준 관리들이 2% 인플레이 목표를 되돌기에 정책이 제한적일지 검토할 때 내년 3월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.
- 그는 금리 인하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.
- 그는 “파월 의장이 말한대로 핵심 질문은 우리가 인플레이를 2%로 되돌리기 위해 연준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- 아래는 12월 연준의 점토표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**WSJ: Markets Cheer Fed Outlook, but the Rally Complicates It**
시장은 연준 금리 전망에 환호하지만 랠리 때문에 복잡해져

- 연준의 이번주 수요일을 통한 향후 금리 인하 신호 땀에 주식과 채권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금리 인하는 기업, 투자자, 가계에 더 저렴한 자금 조달을 의미하며 모기지율도 처음으로 7% 아래로 하락해 주택 시장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.
- 하지만 많은 이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미국 성장세가 너무 강하다고 말한다. 일부에서는 금융 여건의 완화가 연준의 역할을 대신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없애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What Fed Rate Cuts Mean For Your Money, Mortgages and More**연준 금리 인하시 당신의 모기지나 재정은?**

- 우선 주식, 특히 성장기업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하이일드 채권 등 위험 자산의 상승세가 예상된다.
- 60/40 포트폴리오는 최근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이제 다시 성공할 수 있다.
- 은행의 예금 계좌 금리 관련해 은행간 예금 경쟁으로 금리가 너무 빨리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.
- 모기지금리와 신용카드 금리가 인하된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무역]**Bloomberg: Trump's 10% Import Tariff Would Crush Trade, LA Port Chief Says****LA 항만청장, “트럼프의 수입품 10% 관세안, 무역에 타격”**

- LA 항만청 수장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 처럼, 모든 미국의 수입품에 10% 관세를 매기게 되면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의 핵심 부분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LA와 롱비치 항만은 미국 수입의 거의 40%를 차지한다고 우려했다.

- 백악관의 이런 아이디어는 중산층에 대한 전면적인 세금 부과와 같다고 말했고,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글로벌 경제]

Bloomberg: Central Banks Shouldn't Rush to Join Fed Policy Pivot, IMF Says

IMF, “각국 중앙은행은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에 성급히 따르지 말라”

- IMF의 수장인 Kristalina Georgieva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전환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싸움을 쉽게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.
- 그는 “때때로 국가들은 성급하게 인플레를 관리했다고 자축하는데 그런 다음에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이를 이겨내기 더욱 힘들어 진다”고 경고했다.

Bloomberg 기사

[사이버 보안]

WSJ: Intelligence Researchers to Study Computer Code for Clues to Hackers' Identities

미 국가정보국, 해커 추적조사 컴퓨터 코드 개발 중

- 미정부 소속 연구자들 사이버 공격 시 해커들이 사용하는 코드를 기반으로 해커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.
- 미 최고 정보기관인 미 국가정보국(IARPA)은 사이버 공격 범죄자들의 신원 확보 조사의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.
- IARPA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이끄는 Kristopher Reese는 사이버 공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를 추적하고 분석할 전문가가 훨씬 부족하다고 말했다.
- 이번에 개발 중인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이버 해커들의 코드를 분석하고, 관련 조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 말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Tesla Autopilot Recall Threatens Its Defense in Lawsuits Over Crashes

테슬라 리콜 결정, 법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

- 테슬라의 리콜 결정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.
- 미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은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판단했으며, 이에 테슬라는 안전상의 이유로 2백만대의 차량 리콜을 발표했다.
- 테슬라 차 사고 관련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이런 테슬라의 결정이 자동운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며 충돌사고와 관련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.
- 자동운전 시스템과 관련 소송에서 테슬라가 불리해지고 있으며,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관련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

Bloomberg 기사

WSJ: GM's Cruise Unit Is Laying Off 24% of Workforce

GM의 크루즈, 어제 목요일 정직원 900여명 해고

- 어제인 목요일, 자율 운행 자동차 기업인 크루즈가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해고했다. 이는 지금까지 계속됐던 안전사고와 자율 주행 자동차 허가가 연기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.
- 크루즈는 정직원의 24%인 9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말했다.
- 이 기업의 사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크루즈가 다른 차에 치여 이미 부상당한 여성을 약 20피트 정도를 끌고 갔던 10월의 사건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다.
- 크루즈의 대변인은 성명에서, 이번의 결정이 앞으로 크루즈가 안전과 관련해 더 조심스러운 상업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결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GM, Ford and Tesla Contribute to Setback in EV Sales Growth

미 전기차 시장, 내년에 좋지 않다... 전기차 판매 감소 예상

- 블룸버그의 BNEF는 미국의 세 전기차 기업인 GM, 포드 그리고 테슬라의 2024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1천6백70만 대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. 이는 비록 올해 말에 BNEF가 추정한 수치보다 20% 높지만, 지난 6월 장기적인 전기차 전망에서 예측했던 판매량보다 4% 떨어진 것이다. 약 77만 5천 대가 감소했다.
- 이번 조사를 이끈 Aleksandra O'Donovan는 보고서에서, GM과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, 큰 진전이 없는 테슬라의 차량 라

인업은 매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고, 침체된 경제 상황이 전기차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, 내년에 전기차 시장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.

- 또한, BNEF는 내년에 미국에 전기차 시장이 32%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, 이는 올해 성장률인 47%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Finance Yahoo: Costco beats Q1 earnings estimates with a potential membership fee hike looming

코스트코, 내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 크게 증가

- 코스트코가 2024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 큰 폭의 수익 증가를 기록했다.
- 해당 분기에 코스트코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3.58달러로, 월가의 예상치인 3.41달러보다 높았다고 발표했다.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,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한 5백78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5백77억 1천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.
- 코스트코의 주가는 오늘 금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약 2% 상승했다.
- 코스트코의 CFO인 Richard Galanti는 고금리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소비자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.

FinaceYahoo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파월은 성급하다는데...커지는 '물가전쟁 승리' 기대

시장참가자 ¾ "경기 침체 없이 물가 목표 달성 가능"

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은 성급하다고 했지만, 시장에서 물가와와의 전쟁에 대한 승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(NYT)가 14일(이하 현지시간) 보도했다.

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연 5.25~5.50% 금리 동결 발표와 내년 금리 인하 시사 후 "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"라고 말했다.

지난해 9.1%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(물가 상승)이 3.1%로 내려오긴 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